

졸업을 앞둔 권일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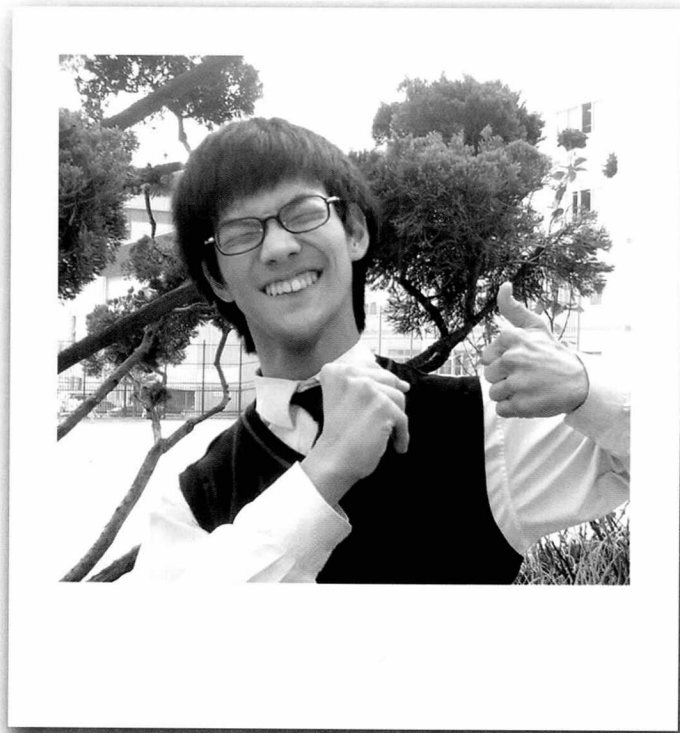
글 □ 손인숙(인천계산고등학교 보건교사)

그러니까 권일을 만난 것은 3년 전의 일입니다. 매년 3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받고 건강이상자가 있는지 건강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인 우리학교에 지체부자유 1급인 학생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저는 담임선생님께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요양호자 설문지를 주고 작성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받아본 권일이 설문지에서 '보건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란에 "이런 거 왜 해요?"라고 괴발개발로 흘려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것을 들고 권일을 찾아 1학년 4반 교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권일은 주위 친구들과 얘기하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간 권일은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냈습니다.

"네가 권일이니? 점심은 먹었니?"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요양호자조사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건교사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일이 입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해 졸업생이었던 민호를 요양호자로 관리하면서 알게 되었던 지체부자유 학생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민호 역시 지체부자유 3급으로 권일이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민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담임선생님께 협조를 구해서 권일을 도와줄 도우미 친구 두 명을 짝지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된 상건이는 반이 달라도 지금까지 단짝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부터!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권일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

니다.

저는 권일이 어머니가 권일이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으면 권일을 특수학교에 보낼 텐데,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 끝에 우리학교에 보내셨을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그런 내색 없이 늘 명량하십니다. 학교식당에서는 권일을 위해 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권일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리실 여사님께서는 배식 전에 맨 먼저 권일이 점심을 식판에 담아서 생선 같은 것은 먹기 좋게 가시를 발라 잘라 놓으십니다. 또 왼손잡이임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수저도 놓아 주십니다. 그것을 본 권일이 어머니께서 감동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권일이가 우리를 더 감동시킨 일이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권일이가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물론 권일이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걷는 것도 불편하고 몸이 흔들려서 혼자서 식판을 들 수가 없고 걸을 때도 흔들거리면서 걷기에 어디 부딪칠까봐 늘 걱정이 됩니다 - 당연히 수학여행을 가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보니 권일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 수학여행이 무척 오고 싶었나보다”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걷는 것이 불편하니 그냥 차 안에 있겠지? 그러면 내가 권일이 친구나 해줘야겠다”고.

그러나 웬걸, 권일이는 상견이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보다도 먼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권일리와 그 일행들을 아주 많이 칭찬해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일 또 한 가지는 권일이 어머니께서 수학여행 가는 날 아침에 예쁜 색색가지 찬함에 김밥, 간식, 과일을 한 도시락씩 담아서 권일이 편에 제게 보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담임교사도 아닌 제가 그런 성의를 받고 보니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선인장 엿을 사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어머니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집에 오는 길에 권일이를 만났는데 어머니께 잘 전하라고 했더니만 권일이 말이 자신이 샤워하러 간 사이 같은 방 친구들이 엿을 다 먹어버렸으며 편지조차 아예 어디 갔는지 못 찾아서 공항에서 다시 하나를 사서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황당했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권일이는 또한 책벌레요, 글 잘 쓰는 학생이며 일러스트에 능한 문학청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기술자입니다. 책을 많이 읽을 땐 하루에 두 권도 읽는다고 합니다. 특히 <개미>와 <나무> 등의 책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권일이는 틈틈이 에세이나 시를 써서 발표하기도 하고 간혹 디스켓에 담아 제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친구의 컴퓨터가 고장 나면, 특히 프로그램이 영키면 권일이가 해결사가 되어 컴퓨터를 고쳐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권일이가 이번 2학기 아주대학교 인문학부에 수시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권일이는 말도 어눌하게 해서 귀를 종긋 세우고 들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데 권일이보다 훨씬 말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을 제치고 합격의 영광을 안은 것입니다. 노하우를 물어보니 면접을 잘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면접하시는 교수님께서 인문학과를 택한 이유를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자신은 서양중세사, 특히 십자군전쟁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은 해박한 지식으로 관심사인 서양사를 막힘없이 줄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권일이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갑자기 두통이 있다고 보건실에 와서 몇교시 내내 쉬다가곤 했는데 열도 자주 오르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서 바로바로 어머니께 연락을 하곤 했는데 그간 너무나 이런 일이 잦다보니 어머니께서는 아주 느긋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보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권일이가 이제 졸업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졸업엔 그동안 마음으로부터 준비해왔던 권일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 주고 싶었습니다. 축하의 꽃 다발과 함께...

“권일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파이팅!” ㄸ